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도에서는 호명관광여행사와 함께 여행안내 054-791-1717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3일 11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흥지구인 구미교육지원청을 격려 방문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13일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2024년 비슬청춘대학 수료식에 참석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줄 것을 당부한다.

月刊 정치와 사람 골독자들 결으로!

## ‘수능 한파’ 없을듯... 기온차 크고 비 예상

15일까지 고기압 영향 맑을듯 수능일 오후 대구 경북 비 예상 “낮과 밤 기온차 10도 이상 전망”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4일 대구·경북은 ‘수능 한파’가 없겠으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5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수능 당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부터 수능 예비소집일인 오는 13일 까지 대구·경북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동풍의 영향을 받는 일부 경북동해안에는 오는 13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수능 당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비는 수능 다음날인 15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대구·경북 대

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평년보다 3~7도가량 높아 다소 포근할 것으로 예보했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5~11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로 예상된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큰 추위는 없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타나 춥겠다”며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



“추운 겨울 나는 데 도움 되길” 수성구새마을회는 12일 수성구청 주차장에서 ‘사람의 감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 등 800여 세대에 감장김치를 전달했다. 동대사가 후원한 강원도 고랭지 배추 5000 포기를 수성구 새마을지도자들이 직접 감장했다. 황태웅 기자

## 李 지사 “도민 뜻 따르는 통합 과정 추진...”

17개 시군 의회 의장 참석 협의회 통합 통한 권한과 재정 확보 강조 지역 균형발전 부분 중점 설명 등



발버둥 치는 것이 통합이다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세계의 흐름도 통합으로 가고 있다. 도쿄도가 도쿄부와 도쿄시가 합쳐져 만들어졌고, 프랑스의 광역자치체인 레지옹도 300만 인구단위 22개에서 500만 인구단위 13개로 바뀌었다. 500만 정도의 인구 규모가 돼야 국내적으로 서울과 경쟁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도시 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통합을 통해 영재학교, 절대농지, 산업단지 등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우리 힘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며 “현재 정부가 광역지자체를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으므로 함께 뜻을 모아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북부권 시군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북부지역 발전 방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도민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많이 가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추진 상황 보고에서 경북도는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과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주요 특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나후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글로벌 미래 특구 및 산업단지개발 특례, 도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통한 지역발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시군 의정들은 북부권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통합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의 장단점이 함께 논의돼야 하고 통합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은 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의 뜻에 따르는 통합 과정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 대구교통공사, 16년 연속 도시철도 만족도 1위

승객혼잡도 분석 운행시각 조정 편의시설 및 방향 안내표지 추가

대구교통공사는 2024년 한국생산성본부 가선정·발표하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군에 대한 소비자 만족 지수인 국가고객만족도(NCS)조사에서 도시철도서비스업 부문 1위를 달성해 동종기관 최초로 2009년부터 16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전 임직원들이 고객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올해도 공사는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과 전반적인 만족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공사는 데이터 기반 고객만족 서비스 혁신으로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열차 내 승객 혼잡도를 분석해 도시철도 운행시간 간격을 시민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등 퇴근시간 승객 분산으로 혼잡도를 완화해 편안한 환경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 시민의 불편과 민원이 많았던 3호선 수성시장역, 대봉교역, 건들바위역에 비둘기 차단망을 설치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평소 민원이나 제안이 많았던 역 위주로 대합실과 승강장 등에 안내표지를 추가로 부착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공사는 출입문 반대편을 보고 있는 승객도 정차역 역사의 역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섬식 승강장 터널 벽면에도 역명판을 추가 부착했으며, 승차 질서 계도를 위해 2호선 반월당역에 ‘먼저 내리고 타기’ 유도문을 부착했다.

이 밖에도 환승역에서 시민성을 높인 ‘편의 시설 및 방향 안내표지’ 10종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환승통로와 편의시설 안내를 개선했다.

황태웅 기자

## 新영농모델 ‘공동영농’으로 배당 지급... 道 지역 확산

공동영농으로 소득을 배당하는 새로 영덕 달산지구 공동영농 첫 배당 다른 작물 전환과 자율계획 수립 2026년까지 도내 30개소 목표

윤 개념의 영농모델인 경북 농업대전환이 도내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덕 달산지구는 다음 달 25일 크리스마스에 2모작(콩·양파+배추) 공동 영농 첫 배당 3000원(3.3㎡당)을 지급한다.

공동 영농을 이끄는 팔각산절임배추 영농조합법인 백성규 대표는 기존 벼농사를 짓던 21ha 농지를 30여 농가와 함께 배추로 전환, 2모작 공동 영농을 하고 있다.

21ha의 논에 벼농사만 지으면 1억 4800만 원에 불과한 농업생산액이 배추, 콩·양파 이모작으로 전환하면 약 4배로 증가한 6억 25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절임 배추로 가공하면 11억 2500만 원으로 8배가량 높아진다.

달산영농지구는 2015년부터 절임 배추 가공사업을 추진해온 백 대표의 경험과 노하우에 공동 영농 배추 가공까지 더해 생산성과 소득을 같이 높일

수 있게 됐다. 법인은 12월 첫 배당 후 다음 해 8월엔 봄배추, 양파 수확 판매 후 추가 배당도 지급한다.

고향인 달산면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2017년 귀농을 결심하고 법인에 합세한 백운영 영농법인 팀장은 “내가 마을에서도 유일한 청년이다. 처음 혁신농업타운을 시작할 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염두도 안 났지만, 농가들과 함께 하니 희망이 보였다”며 “현재 21ha에서 50ha까지 인근 지역으로 확대해 고향 달산면의 명맥을 잇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공동 영농을 추진 중인 구미(무용면)에서도 연말에 소득을 배당한다.

하절기에는 콩과 특수미를, 동절기에는 조식료 등 2모작 공동 영농과 더불어 두부 가공 등 융복합 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고 있다.

경북 최대 평야지인 의성에서도 농업대전환에 한창 진행되고 있다.

기존 벼농사에서 고구마·조식료로 전환해 농가 소득 배가뿐만 아니라 마을, 자두에 이은 새로운 소득작물의 여성 농업의 부흥시대를 열어나간다.

이 외에도 경주, 청도, 상주에서도 벼 대신 콩, 양파·조식료 등 다른 작물로 전

환해 경북형 농업대전환이 순항 중이다.

경북형 농업대전환(혁신농업타운 조성)은 지난해에는 문경 영순면(콩+양파·감자), 구미 무용면(콩+배추·조식료), 예천 지보면(점단형-곤충산업화센터, 스마트팜, 수직농장) 등 7곳에서 처음 진행됐다.

올해는 경주 외동면(콩+조식료·찰보리), 상주 함창읍(콩+양파·감자), 의성 단북면(고구마+조식료), 청송 주왕산면(사과 공동육묘 등), 영덕 달산면(콩+양파·배추), 청도 각북면(콩·친환경벼+유채·양파), 봉화 재산면(수박+토마토) 등 7곳이 새로 추가돼 현재 14곳에서 추진 중이다.

혁신농업타운은 민선 8기에 들어 이철우 도지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농업대전환 핵심 시책으로 첨단화·규모화·기계화를 통한 2모작 공동영농으로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 마을이다.

성공모델이 된 ‘문경 영순지구’는 법인 대표와 젊은 청년들이 주축이 돼 공동 영농 법인을 만들고 벼농사 대신 콩, 양파·감자를 2모작으로 경작하고 있다.

규모화·기계화로 농업생산액은 3배, 농가 소득은 2배라는 엄청난 성과가 나타났다.

경북도는 내년에는 콩, 조식료 등 논 다른 작물 전환과 대규모 들녘 단위로 시군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계획을 수립해 농업대전환을 정착시키고 2026년까지 도내 전 시군에서 30곳의 혁신농업

타운을 만들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첨단화·규모화·기계화를 통한 농업대전환의 성공을 확인했다. 이제는 확산과 동참이 중요한 시기”라며 “농촌의 들녘 10%만 벼농사에서 다른 작목으로 바뀌면 농업이 달라진다. 전 시군,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 경북에서 농정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군위 삼국유사 전국 가족걷기대회 성료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고 처음 열린 군위로 걷다보니 대구GO! 제3회 군위 삼국유사 전국 가족걷기대회'가 지난 9일 삼국유사면민운동장에서 2,000여 명의 동호인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5km, 10km 걷기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쌀쌀한 날씨 속의 걷기를 마치고 몸을 녹여 줄 소고기국밥과 돼지강정, 소불고기 전골 등을 먹기 위해 긴 줄을 서기도 했다. 박재성 기자



국제물주간... "물산업 글로벌 협력 모색"

대구시 13~16일 국제물주간 행사 세계물도시 포럼·국제 컨퍼런스 7개 국제기관 참여 정책 등 교류

대구시는 13~16일까지 4일간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를 개최해 물 분야 해외 도시 대표, 학계 및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물도시 포럼, 국제 물산업 컨퍼런스, 세계 물 클러스터 리더스포럼 등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 강화 및 물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세계물도시 포럼(WWCF)'은 2015년부터 대구시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고, 물 선진도시와 개도국 도시 간 물 관련 정책 및 기술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대구광역시 주도의 세계 도시 간 물 문제 협력 플랫폼이다. 이번 행사에는 핀란드 미켈리, 일본 구마모토, 필리핀 마닐라, 네팔 카트만두 등 9개 국가 9개 도시와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

스톡홀름 물연구소(SIWI), 세계물위원회(WWC), 아쿠아페드(AquaFed) 등 7개 국제기관이 참여한다.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 물안보 증진 방안'과 '물산업 진흥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두 개의 주제별로 라운드 테이블이 구성되며, 도시 간 물 정책 사례 공유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 가능한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한다. '국제 물산업 컨퍼런스(IWIC)'는 '모두를 위

한 깨끗한 물 확보'라는 주제로 세계 물 시장 전망과 관련 기술 동향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증진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11개 국가 2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기조강연, 테크니컬세션, 인터스트리세션, 포스터세션, 산업시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국환경공단과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등이 참여하는 인터스트리세션에서는 글로벌 물기업과 한국강소기

업과의 동반진출 전략, △물산업 정책의 이해, △미래대응 ESG 등 물기업 종사자를 위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이 국내외 물 문제 해결과 물산업 발전에 대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도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물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대구시는 11일 오후 6시 삼성창조캠퍼스 내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다자녀 모범가정, 출산장려 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대구시 출산장려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돌이 만나 돌이 아이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라는 의미로 매년 11월 11일을 대구광역시 조례로써 '출산장려의 날'로 지정해 2010년부터 개최, 올해 15회째를 맞이했다. 황태용 기자

달성군 '저출생 우수사례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저출산 문제 적극 대응 호평 달성군이 11일 개최된 제15회 출산장려의 날 기념식에서 '저출생 우수사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장 표창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달성군은 '꿈을 꾸는 아이들, 꿈을 주는 달성군'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대구시 최초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전액 무상 지원'을 통해 모든 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특별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2023년 8월부터 대구시 최초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다양한 근로 형태의 부모들의 보육 공백을 해소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영어교사 파견'을 도입하여 소외되는 영유아 없이 모든 아이들이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등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출생아수 1위에 걸맞는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 군은 찾아가는 인구교육, 다동이 가족캠프 카라반 대여비 지원, 신혼부부 결혼 축하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 중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상습 교통혼잡... 매천대교 하부 진출로 확장

2개차로 확보 14일부터 운영 교통사고 위험 민원 지속 제기 대구시는 간선도로의 원활한 이동 가능 확보를 위해 교통혼잡이 상습 발생하던 매천대교 하부 금호지구방향 진출로를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확장 개선하고 이달 14일부터 운영한다. 이곳 매천대교 하부 장태실내거리라는 사수로, 매천로 등 대구시 주요간선도로가 연결되는 지점으로 출·퇴근 시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교통

혼잡으로 평소에도 몸살을 앓고 있던 지점이다. 특히, 매천로(농수산물도매시장)-사수로 연결 구간은 기존 1개 차로로 운영돼, 팔달로 방면 좌회전 차량량 신호대기시 금호지구 방면 우회전 차량의 소통에 영향을 주고 있어,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리고 혼잡시간대에는 매천로 본선(약 750m)까지 매천로의 간선도로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어, 출·퇴근 시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간이 평균 9분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2022년 7월,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최

소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혼잡개선공사를 착공하여 사수로 방면 연장 316m의 진출로를 1개 차로에서 폭 10m의 2개 차로로 확장, 팔달로 방면 좌회전 차량량과 금호지구 방면의 우회전 차량을 완전히 분리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 공사로 진출로 교차로의 지체시간이 62%, 차량대기행렬의 길이가 78%(750m→160m)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선 구간의 금호지구 방면 우회전 차량의 교차로 통과시간이 4분 정도 단축돼 주변 도로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태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회장 손경관 |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서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시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명대 '2024 대한민국 SW교육 페스티벌' 참가 계명대학교는 1~3일까지 서울 분다비지무 지점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SW교육 페스티벌'에 참가해 미국 퀄컴연구소(Qualcomm Institute, 이하 QI)와 공동 운영하는 AI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성과를 선보였다. 이번 페스티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행사로 'AI-SW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SW 교육 콘텐츠와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계명대와 QI가 공동으로 개발한 AI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시작해 한양대, 연세대, 중앙대 등 국내 우수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다. 황태용 기자

행복한 시민 자랑스럽고 대구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살고 싶은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 DAEGU DAEGU METROPOLITAN CITY

경산 진랑읍 익명 기부자, 쌀 60포 기탁

경산시진랑읍행정복지센터에 11일 한 익명의 젊은 기부자가 방문하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 달라며 200만 원 상당의 쌀 60포를 기탁해 진정된 감동을 전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저절로 익명의 기부자는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뜻하지 않은 수익이 생겨 보람 있는 일에 쓰고 싶어 고민하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제감상 더욱 힘든 시간

을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미영 진랑읍장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용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기부 천사의 고귀한 마음이 깊이 감사된다”고 말했다.



日 암컷 대게 유통... 道 “시장 안정화 적극 대응”

영덕군 강구수협서 긴급 회의 해양경찰 협력...감시 단속 강화 “일본 연중 포획...생존권 위협”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며 동해안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경북 영덕, 울진, 포항 등 대게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지역에서는 유통 질서 혼란과 어업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7일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 영덕군 강구수협 대회의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해성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 김성식 강구수협장, 경북도청 어업 관리 담당 사무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본산 대게 유통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국내법상 제장

9cm 미만의 대게와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 및 유통이 금지돼 있으나 일본에서는 체장 8cm 이하의 대게까지 포획할 수 있어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된다”며 “이는 국내산 불법 대게와 혼란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단속이 어렵다. 수산 자원관리법이 유명무실화되었다”고 말하며 법적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해양경찰과 협력해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해상 단속 확대와 함께,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일본산 대게와 국내산 대게를 명확히 구분하는 원산지 단속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김해성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은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법적 제한으로 인해 6월부터 11월까지 대게를 잡지 못하는 동안, 일본에서는 대게를 연중 포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게가 국내에 식품으로 둔갑하여 들어오는 현실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호소했다.

이경곤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경북은 대게 산업의 중심지로서 어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부처와 협력해 관련법 개정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지역 어민들과 함께 대게 유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성주군 도시재생사업 2단계 준공식

대규모 행사 가능 컨벤션 기능 주차난 해소 등 삶의 질 향상

성주군은 11일 별의별문화마당에서 성주군수, 경북도 관계자, 군의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도시재생사업(2단계)은 20년 11월 공모에 선정되어 21년 1월 설계용역 착수, 21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다.

도시재생사업(2단계)의 세부사업은 건강문화 캠퍼스, 어울림복합타운, 별의별문화마당, 경산리 마을만들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강문화캠퍼스는 성주체육관 리모델링과 주차 170대 수용 가능한 연면적 4,910㎡, 4층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으로 2023년 3월 준공하여, 체육관은 운동 및 문화 공간,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컨벤션 기능을 담당하며, 주차타워는 성주읍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어울림복합타운은 기존 성주읍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4,900㎡ 규모로 올해 6월 준공하여, 1층에는 성주읍행정복지센터·작은도서관·주차장(41대), 2층에는 생활문화센터·돌봄센터·사회단체, 3층에는 지역예비군센터, 4층에는 CCTV통합관리센터가 자리해 있다.공공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행정·문화·복지 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도재훈 기자

경북 안전관리 우수업소 4곳 추가 선정

2년마다 현장점검·심사 총54곳 규정기간 화재 안전 조사 면제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8일 소방의날 기념식 행사장에서 '2024년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은 관계자들이 주도하는 안전시설 점검 및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유도하고, 우수업소 선정에 따른

혜택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선정했다.

현재까지 도내에는 54개의 업소를 선정하였으며,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2년마다 현장점검 및 정기 심사를 통하여 법령 등의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갱신 절차를 진행한다.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기준은 소방시설상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의 법령 위반 여부, 최근 3년간 소방, 건축,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여부,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 교육 또는 소방 훈련 실시 여부 등이다.

조여은 기자

도내 건설 현장 안전 교육 진행

최근 통계 건설사고 큰 비중

경북도는 도내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경북도는 11일 경북도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도내, 출자·출연 기관의 공사 감독, 안전 담당자 및 경북도 각 현장 관리담당, 현장소장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 교육'을 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건설사고 사망자가 사고 사망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에 관한 의무 사항을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

업자, 경영책임자, 공무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붕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토목, 건축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로 사업주, 안전관리 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건설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안전한 건설 현장 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공사 감독 등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마련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건설도시국은 지속적인 공사관계자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없는 건설 현장 만들기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 안전관리 우수업소 4곳 추가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8일 소방의날 기념식 행사장에서 '2024년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은 관계자들이 주도하는 안전시설 점검 및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유도하고, 우수업소 선정에 따른 혜택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선정했다. 현재까지 도내에는 54개의 업소를 선정하였으며,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2년마다 현장점검 및 정기 심사를 통하여 법령 등의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갱신 절차를 진행한다.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기준은 소방시설상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의 법령 위반 여부, 최근 3년간 소방, 건축,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여부,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 교육 또는 소방 훈련 실시 여부 등이다.

조여은 기자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 결혼, 출산, 돌봄까지 모든 것을 경북이 책임지겠습니다! 100대 실행 과제 table with 100 items and their status.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청송 울릉

# 경주 '완충저류시설'... 수질오염 예방 강화

2027년까지 시설 용량 3420m<sup>3</sup>  
오염 포함 우수 유입 차단 효과  
내년부터 기본·실시계획 등 예정

경주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내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 국고보조 공모사업에 두류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이 최종 선정돼 국비 11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1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2027년까지 4500m<sup>3</sup> 부지 내 저류시설 용량 3420m<sup>3</sup>, 차집관로 3.6km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한다.

완충저류시설은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나 먼지, 기름, 중금속 등 다양한 오염물질을 포함한 초기 우수를 저류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수질오염 예방시설이다.

두류공업지역은 50여 곳의 폐기물·화학제품 관련 사업장이 입주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폐차장 화재 사고, 2022년 금속제련공장 냉각수 유출 사고 등 각종 사고로 그간 수질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계획과 토지매입을 거쳐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류공업지역 내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면 질



평천, 형산강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물론 공장 화재, 화학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행복도시 구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두류공업지역은 개별입지 공단으로 그간 오염물질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라며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

는 안전장치인 완충저류시설 공사를 성실히 추진해 안전한 경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재경경주향우회, 장학금 기탁

재경경주향우회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8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주낙영 경주시장, 박성환 재경경주향우회장, 김규태 부회장 등 향우회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장학금을 쾌적하고 고향 소식을 나누는 등 변함없는 고향 사랑을 확인했다.

재경경주향우회는 지난 1992년 도부터 고향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꾸준히 이어 온 결과 금회까지 총 2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그간 향우회 원상호간 유기적인 관계 유지는 물론 친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매년 신년교례회, 한마음 등산대회,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 휴가철 관광객 유치 홍보, 경주 천년나들이 지원을 통한 농축산브랜드 홍보,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축하 행사를 개최하는 등 고향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식품 나눔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결혼이주여성 40여 명이 1년간 정성들인 된장을 만든 된장을 관내 경로당 244개소에 전달하는 '사랑의 된장 나누기' 사업을 12일 펼쳤다. 협의회 회원들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메주를 천일염으로 담가 장가르기를 하고 1년 동안 전통 방식으로 숙성시킨 된장을 마련했다.

협의회 강필여 회장은 "회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이 함께 된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통의 비법을 전수할 수 있어서 나눔의 깊이가 더된 것 같다"고 전했다.



청송군, 행복한 부모 교육

청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8회기에 걸쳐 '아들러 심리학에 기반한 행복한 부모되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들러 심리학에 기반한 행복한 부모되기'는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역할모델이 되어 가정 내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0~18세의 독립성과 자존감 향상, 문제해결 기술, 스가족의 가치 확립에 대해 알고, 이 과정을 통해 배운 이론과 실습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35종 확대

최저 100만원~최대 3000만원  
보장 항목 8종 추가로 가입해

울진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을 기존 27종에서 35종으로 보장 항목을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물놀이 사망 △화상 수술비 등 사망 또는 후

유장애 발생 시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장 항목 8종을 추가로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로 전출 시와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또한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한 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2건, 약 2억 7000만원 정도이다.

순병복 울진군수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위해 보장을 추가해 군민들이 사고 이전의 삶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 포항 지진피해... 국민임대주택 신청 접수

홍해읍 학성리 일원 200세대  
임대료 주변시세 60~80% 계획

포항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홍해읍 학성리 223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우선공급대상자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 가능한 우선공급대상자는 '지진피해 주민'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포항시청 지진방재사업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포항홍해 국민임대주택은 3개 동 총 200세대로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우선공급 될 세대수는 9평형(29m<sup>2</sup>) 22세대, 12평형(37m<sup>2</sup>) 29세대, 15평형(46



m<sup>2</sup>) 49세대 등 총 100세대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로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5월 입주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지진피해주민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9인 가구 기준) 719만 원, 총자산가액은 4억 4,850만 원 이하

여야한다.

단, 25일까지 우선 공급 신청한 경우라도 12월 예정인 입주자모집 공고 시 지정된 접수 기간에 반드시 다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LH대구경북임대공급운영팀(053-603-2831) 혹은 포항시청 지진방재사업과(054-270-5642)에서 안내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홍해 특별재생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립으로 지진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홍해 지역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우선공급대상자 신청접수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 경주시 파크골프장 유료화 추진

무분별 이용·독점 현상 차단  
타지역민 1만원 차등 적용

경주시가 파크골프장의 공정한 이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파크골프장 유료화에 나선다.

이번 유료화는 파크골프장의 무분별한 이용과 시설 독점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는 파크골프가 큰 인기를 끌며 특정 시간대에 이용객이 몰리고 시설 독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이용료 징수에 따라 시설 관리 및 보수, 인력 운영 등 경주시의 재정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료화 대상은 앞천파크골프장과 경주파크골프 1·2구장이다. 연간 이용료는 경주시민 기준 개인 12만원, 단체 10만원이며, 65세 이상 시민은 50% 할인 적용을 받는다. 1회(4시간) 이용료는 경주시민 6000원, 타지역민 1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시설



관리와 운영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다.

시는 유료화에 앞서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 파크골프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로 이용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시에 재정 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파크골프장 유료화는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과 함께, 시설 개선과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찬 기자

## 울릉경찰서, 수능 후 청소년 지도 보호

울릉경찰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미리 시험장이 있는 포항으로 출발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함과 동시에 수능 후 청소년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날 수험생들이 출발하는 사동항에는 울릉경찰서뿐만 아니라 울릉군청과 울릉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수험생들을 격려하였고, 수능시험 이후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기관별 추진사항과 협업 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울릉경찰서는 △SPO의 청소년 진로 상담과 △유해환경 전수 점검 △교외 생활지도 등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과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중심의 선도 활동을 통해 청소년 비행 행위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대근 울릉경찰서장은 "지자체 및 교육청 등 기관과 협력하는 등 종합적인 청소년 범



죄 예방활동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고령 청년예술인 공연 성료

고령군이 주최하고 고령문화원이 주관하는 창작음악극 '꿈의 메아리' 공연이 9일 대가야문화누리 우극홀에서 관객의 뜨거운 호응과 환호를 받으며 성대히 막을 내렸다.

2023년부터 시작된 고령군의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은 경북 및 인근지역 소재(거주)하는 청년예술인들이 한 해 동안 고령에서 지역의 청년예술가와 협업하는 문화예술사업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주인공이 다시 노래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이 가장 젊은 순간이라는 깨달음과 나이를 뛰어넘는 도전의 용기를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하였다.



영천 스마트도시센터, 감사장

영천시는 12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요원 2명이 세심한 모니터링으로 음주운전 적발에 기여해, 영천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새벽 3시 28분경 스마트도시통합센터 CCTV 관제요원은 문외동의 식당 앞에서 음주 상태로 보이는 남성을 관찰하던 중, 남성이 운전석에 탑승하자 신고했다.

이후 노상에 정차하는 장면을 보고 3시 31분에 제차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 운전자를 검거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또, 지난 9월 10일 오후 10시경 경찰서의 협조 요청으로, 망정동에서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자를 검거했다.

영천, 마늘주산단지 회의... "11개 시·군 협력"

최저가격 보장...가격 안정제 확대 기후변화 대응 현장 기술 연구 등 기계화율 ↑ 트랙터 지원 필요 제안

영천시는 지난 7일 영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산업발전 및 마늘재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마늘주산단지 광역협의회는 전국의 11개 마늘주산단지 시·군으로, 영천시를 비롯해 서산시, 태안군, 고흥군, 무안군, 해남군, 함평군, 신안군, 의성군, 장성군, 남해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마늘 적정가격 유지 및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매년 순환제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장 적용 기술 연구 및 보급 등 마늘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남해군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로 인해 발농업 분야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트랙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다른 시·군 참석자들도 동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

을 주고받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1996년 광역협의회 출범 이후 11개 시·군이 마늘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협력함으로써 국내 마늘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마늘이 양념채소에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은하 기자



특판행사 연속 완판 행진 영천시는 지난 8월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주요매장에서 실시한 영천복숭아 특판행사, 전국 이마트와 함께하는 영천포도축제 등 전국 대형마트와 함께한 영천과일 특판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전국 이마트와 함께하는 영천포도축제는 3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사인머스켓 1.5kg 7만 상자, 총 105톤을 완판할 정도로 전국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최은하 기자

경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발굴

28일까지 시청 징수와 방문 신청 10만원 이상 기부자 특별 이벤트

경산시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답례품을 재정비하고 기부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답례품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답례품 모집 분야는 △농·축·임산물 △

가공식품·공예품·공산품 △관광·서비스 등 세 가지로 나뉜다. 12월 말 공급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공급 업체를 포함해,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경산시에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연중 적기에 답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법인)로, 접수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업체의 제안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공급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산시는 11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경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연말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 관련 정보는 경산시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주, 외식업 메뉴개발 아카데미 수료식

상품성 강조 외식업소 요리 강의

성주군은 지난 11일 성주군농업기술센터 조리실습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2024년 외식업 영업자 메뉴개발 요리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메뉴개발 요리아카데미는 수강생들의 열띤 호응 속에 역량강화 교

육, 요리실습을 통한 경영마인드 개선과 다양한 메뉴개발로 지역 외식업체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1회차 대가야문화대학교 김규원 교수의 외식업체 전망과 성공전략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2~12회차는 주제에 따른 전문강사의 진행으로 상품성을 강조한 외식업소 접목 요리까지 상품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도재훈 기자

칠곡군 '건강담은 칠곡할매' 온라인 행사

SNS 채널서 퀴즈&팔로우 이벤트

칠곡군은 군 공식 SNS 팔로우 수 증대와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건강담은 칠곡할매'의 홍보를 위해 SNS 채널에서 퀴즈&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한다.

'건강담은 칠곡할매'는 칠곡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농산물 공동브랜드이다. 이벤트 참여는 칠곡군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스토리)를 방문해 채널을 팔로우한 후 퀴즈 정답과 응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퀴즈&팔로우 이벤트는 오는 13~17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20일 칠곡군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이 쏟아지는 밤! 밤이 아름다운 영천! 보현산댐 짚와이어 & 출렁다리 탐승거리 1,411m, 최고 100km/h의 속도 체험

영천 보현산댐 짚와이어, 보현산댐 출렁다리

### 구미 김천 문경 상주의성



#### 상주시, 어르신 영양 지원

상주시 공경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면역 UP' 영양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영양불균형이 우려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영양제를 지원하여 면역력 향상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신규사업으로 정기회의를 통해 선정된 30가구에 대해 영양제 1박스(6개월분)씩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안숙희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들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가정에 방문해 종합영양제를 전달했다.

안숙희 민간위원장은 "살살해지는 날씨에 면역력 강화가 절실한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김천,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김천시는 지난 11일 김천 로제니아호텔 중회의실에서 2024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김천시 보건소가 주관하고 김천의료원, 김천소방서, 김천경찰서가 참여한 가운데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체계 △개인보호장비 이해 및 착용의 실습 △검체 안전 수송 및 다중탐지키트 사용법 실습 등 실전 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생물테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특히 개인보호장비 착용의 실습으로 고위험 상황에서 적절한 보호장비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벗는 방법을 익혔다.

# 상주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추진 성과

## '제29회 농업인의 날' 각종 수상 농식품부 주관 기념식 정부포상 농업인대상 전체대상 등 성과

상주시는 11일 11시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정평가대상' 기관 수상 및 '경북 농업인대상' 전체대상과 과수화훼 부문을 수상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에서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는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정분야 전반에 관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군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농업대전환, 농식품유통, 스마트농업혁신, 축산 정책, 동물방역, 특수시책 등 7개 분야 28개 지표를 설정하여 시군별 역점시책 추진 및 농업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상주시는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2024년 경북 농업인대상'에 전체대상에 신홍동 이연호 씨, 과수·화훼 부문에 모동면 김완진 씨가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에 해돋이영농조합법인의 이운식 씨, 국무총리표창에 박대훈 씨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는 상주시가 경기침체에 따른 농산

물 가격하락 등 대내외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의 구조 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 추진 등 민·관이 합심하여 이룬 결과로, 상주시의 농업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상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상주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첨단 ICT 농업추진과 기술접목을 통한 농업 생산성 및 품질향상, FTA 등 시장 확대 및 다변화로 농산물 수출 확대, 치유농업 육성 등 농촌의 가치 재인식,

다양한 귀농귀촌 시책 추진, 청년농업인 육성 등 '국가 국민의 생명창고 농업상주'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주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농업인들과 관계자분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농업도 변화하면 살아남을 수 있으며, 농업인들의 인식전환과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 대비해 ICT 농업확산 및 지역 농축산업의 다각화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업의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구미시, '산업역군의 아침밥' 3천명 전달 행사

### 구미상공회의소 주관 진행 올해 3배 늘려 아침 제공해

구미시와 구미상공회의소는 12일 오전 7시부터 구미산업단지 내 세 곳에서 근로자의 든든한 출근길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역군의 아침밥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진행된 '친원의 아침밥'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으며, 구미 지역 경제의 주역인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획됐다. 구미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구미시는 한마음으로 동참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지난 행사에서 예상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해 준비된 식사가 빠르게 소진된 것을 반영하여, 이번에는 수량을 3배로 늘려 3천인분의 아침을 무료로 제공했다.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샌드위치와 음료를 한 세트에 소포장해 제공해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침밥을 받은 한 근로자는 "평소 바쁜 출근길에 아침을 자주 결렸는데, 예상치 못한 따뜻한 한 끼를 제공받아 기분이 좋았다"며, "이번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구미 근로자분들에게 매일 아침밥을 제공해도 부족하지만, 이번 행사로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 근로자들을 위해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신 윤재호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구미시는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근

로자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업 성장과 근로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매년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최고기업인과 최고근로자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해외 선진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기업과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구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세미나

구미시는 11일, 강명구 국회의원주관으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미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조성철 국토연구원 산업단지연구센터장 등 철도 및 산업단지 전문가 7명이 함께해 구미시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구미시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교환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용상 우송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송년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노진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미래전략기획단장, 강신해 구미시 도로철도과과장 등 전문가들이 구미시의 산업 재도약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특화단지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이 구미시 주력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논의하며 철도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게 되어 뜻깊다"며, "철도 인프라 구축과 산업단지 개선을 통해 구미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주 기자

## 의성군, 친환경 섬유 수목 보호대 설치

### 남대천 실외정원 내 메타세콰이어

문경시는 4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인구정책사업 담당팀장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문경시 인구는 10월말 기준 67395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안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에 2031년까지 연 1조원 규모의 기금을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9개 기금 사업을 점검하여 추진 과정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공유, 기금 우수등급을 받기 위한 방안강구, 지역 맞춤형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경시 관계자는 "인구감소를 막거나 인구수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지역특색에 맞는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더욱 경쟁력을 갖춘 활기찬 문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 문경시 2027년 세계소프트테니스 대회 유치

### 65개 회원국 보유... 조직위 구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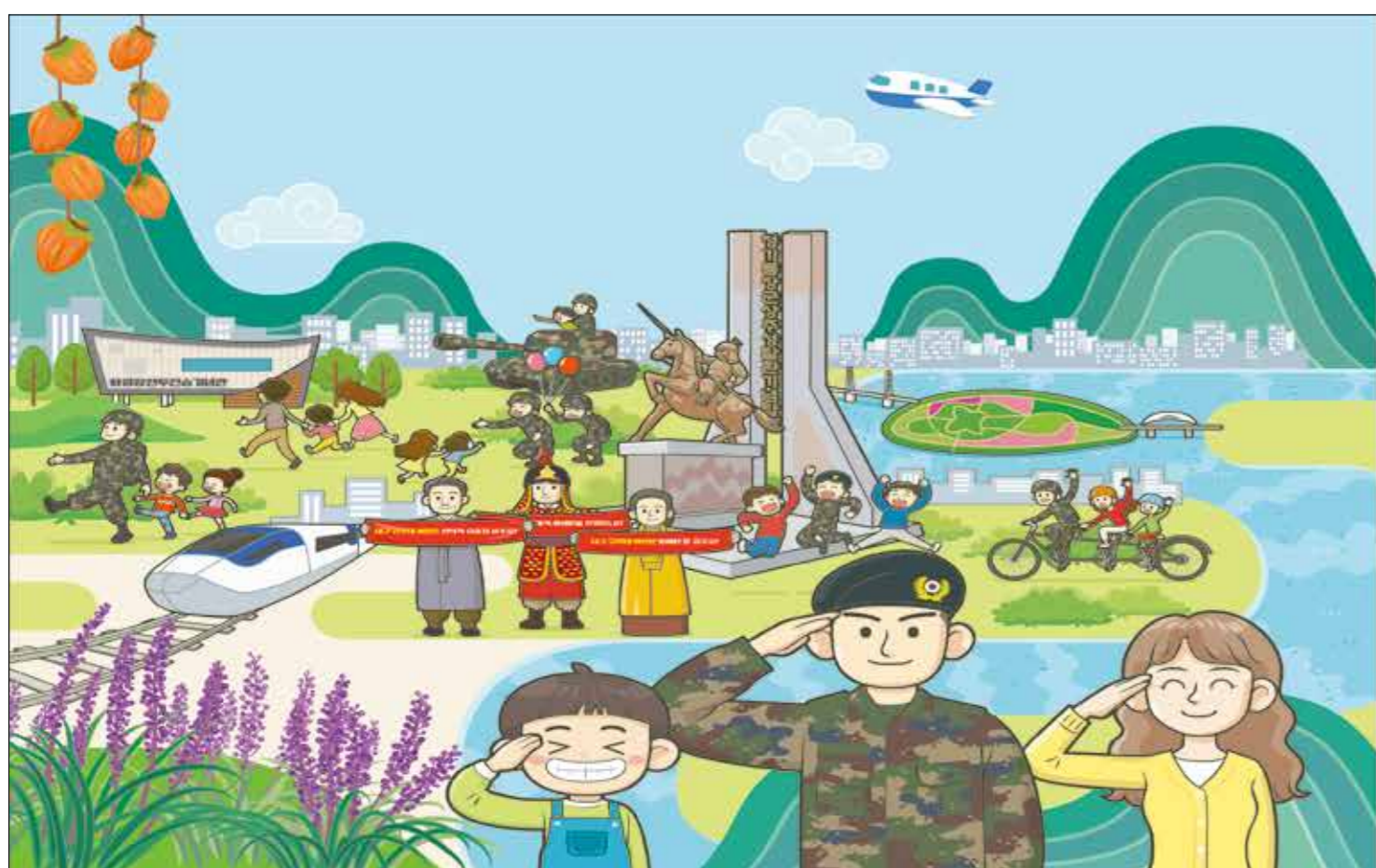


문경시가 2027년 세계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문경시는 2011년에 열린 제14회 대회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세계소프트테니스 선수권을 개최하게 되었다.

본 대회 유치는 국제소프트테니스연맹 회장 겸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장인 정인선 회장이 지난 10월 7일 문경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현국 문경시장이 적극적인 대회 유치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중국 징상현 ISTF(국제소프트테니스연맹) 임시총회에서 한국, 중국, 대만의 대회 유치 경쟁 끝에 만장일치로 문경을 개최지로 확정하게 된 것이다. 문경시와 문경시소프트테니스협회 관계자가 ISTF 임시총회 현장을 방문하여 유치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선 바 있다.



## 준비된 땅 상주!

임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가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최적의 임지와 교통**

국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한 것이 없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률 조화롭게 갖춰 건설준비된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결집된 유치 의지**

병사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군사시설 유치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상주시**  
SANGJU CITY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POWERFUL DAEGU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 250만 대구시민도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은  
30여년간 이어온 대구시민의 염원입니다.  
대구시민의 안전한 물 마실 권리를 위해  
안동댐 1급수를 대구로 직접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돗물 걱정 없는 ‘맑은 물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로 만들겠습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맑은 물 하이웨이’는 안동댐 직하류에서 수질 좋은 원수를 취수해 110km 길이의 도수관로를 따라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